

[준기획] >> 3면
우리학교 선발 정보 공개

[기획] >> 5면
잔디 운동장 문제

[사회문화] >> 8면
무관심 속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학술] >> 9면
설탕세 논의 본격화



달라진 수강신청 방식... 편의 속 남아있는 한계, 향후 과제는?

우리학교는 지난 1월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됐던 기존 수강신청 방식과 더불어 사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수강신청제도의 현황 및 양면성을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우수' 3회 연속 획득

우리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서 지난해 연차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사업에서 3회 연속 우수 평가를 달성하며 우리학교의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장이 확정됐다.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교과 및 비교과 연계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지원 기능 통합△전문 상담△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청년 고용정책 홍보 등을 통해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고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청년을 위한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일자리 매칭△전문 통합 상담 체계 마련△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심화 발전△진로 및 취업 교육 강화 등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거점 선도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학교는 지난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대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장기 간 축적된 진로 및 취업 지원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번 성과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대학 차원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성과 지표의 체계적 관리△취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성과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지연 서울캠퍼스 전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우수 등급 3회 연속 획득은 체계적인 진로와 취업 지원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는 지역 거점형 청년 고용 플랫폼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달 20일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위수여식은 단과대학 별로 나눠 진행됐으며 글로벌캠퍼스 학부 학위수여식은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전체 행사로 개최됐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학위수여식은 이날 설캠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오바마홀(Obama hall)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기 학위수여식에선 총 2,936명(△학사 2,261명△석사 593명△박사 8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교무위원△김덕술(아시아·일본 81) 총동문회장(이하 김 총동문회장)△박정운 전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정운 전 총장)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박정운 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방향을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라며 "학문의 품격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에서 결정된

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언어△학문의 경계를 넘어 사유해 온 우리학교의 전통을 이어 △공공의식△지성△책임"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18만 동문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총동문회장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전환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긴장을 안겨주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다"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목표를 쉽게 바꾸기보다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과 과정을 바꾸며 다시 도전하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나눌 때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18만 동문이 쌓아온 전통 위에 여러분의 새로운 발걸음이 더해질 것이다"라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대학생 채무조정

- 상황별 맞춤형 채무조정
- 학자금대출, 통신요금 분할상환
- 대학 졸업시·군전역시까지 대출상환 유예 (연체 90일이상)

청년지원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연계
- 신용교육 제공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 무료 신용진단서비스 (신용플러스 앱)



대학생 ·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부터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지원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ccrs.or.kr
1600-5500



박정운 우리학교 전 총장 이임식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박정운 우리학교 전 총장(이하 박정운 전 총장) 이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학을 이끈 박정운 전 총장의 노고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임식엔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 △교직원 △김덕술 총동문회장 △김종철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문위창 사이버한국의 국어대학교 총장 △양인집 전 총동문회장(이하 양 전 총동문회장) △제1기와 2기 처장 단 △주요 보직자 △학생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 이사장 치사 △총장 열쇠와 교기 인계 및 인수 △강기훈 총장 내정자 환송사 △양 전 총동문회장 환송사 △박정운 전 총장 이임사 △공로패 수여 △꽃다발 증정 △교가 제창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박정운 전 총장의 재임 동안의 헌신과 성과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학과 통합을 통해 우리학교의 오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한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리더십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또한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추진 과정에서 기존 캠퍼스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쓴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총장 열쇠와 교기 인계 및 인수식에선 대학을 상징하는 총장 열쇠와 교기가 전달되며 리더십의 전환이 공식화됐다.



강기훈 총장은 환송사를 통해 '하나의 외대'라는 비전 아래 학제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로 구조적 혁신을 이끈 점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대규모 발전 기금 유치 △대학혁신사업 성과 융합 교육 기반 마련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대응 등을 언급하며 "총장님께서 다져주신 토대 위에서 그 성과를 계승 및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양 전 총동문회장은 환송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혁의 방향을 잃지 않았던 박정운 전 총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진 적극적인 발전 기금 유치 노력에 대해 동

문 사회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으로 전했다.

이에 박정운 전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라며 공정과 책임의 원칙 아래 대학 운영에 임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도입 △유사 학과 통합 △전공 이수 학점 축소를 통한 복수전공과 융합전공 활성화 등 학사 구조 개편을 주요 변화로 언급하며 "학생들이 꿈을 꾸고 발전하며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선 취임 당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조정과 지출 통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부채를 감축했으며 발전 기금 확충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개선했음을 밝혔다. 또한 송도캠 개발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과 이를 지원한 재단 및 구성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정운 전 총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공로패 수여와 꽃다발 증정에서 박정운 전 총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감사의 뜻이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박정운 전 총장의 노고에 존경을 표했으며 이임식은 교가 제창과 함께 마무리됐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김은경 우리학교 86학번 동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김은경 (법 86)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이 흔들린 국민이 다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개인의 신용 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용 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특히 청년을 위해 군복무 전역 시 또는 졸업 시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금융(신용 교육 및 소액 생계비 대출 등) △복지(긴급 생계지원금 등) △취업(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제도를 연계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이 일상을 회

복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0년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06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교육에 힘썼으며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금융 부채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이다"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오히려 더 건강한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Q1. 우리학교 법전문원 교수에서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법을 이야기할 때 늘 고민했던 '정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지금은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서민금융 정책은 '복지'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역시 시혜적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가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생활비 △치열한 취업 준비 △학자금까지 요즘 청년들이 짊어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위원회에서 동료로 만나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 이윤희 교수, 세계기호학회 공식 학술지 세미오티카 최우수논문상 수상

이윤희 우리학교 교수(이하 이 교수)가 세계기호학회(IASS-AIS) 공식 학술지 세미오티카(Semiotica)의 무통도르상(2025 Mouton d'Or Award,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무통도르상은 매년 국제 심사위원단 3인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동일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는 해당 상 제정 이래 한 연구자가 두 차례 수상한 최초의 사례다.



이 교수의 수상 논문은 지난해 세미오티카 266호에 게재된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자아성 규명'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 미학적 행위, 및 내러티브 기호 과정(The role of sentiment, aesthetic behavior, and narrative semiosis in the identification of selfhood from Peirce's semiotic perspective)'으로 해당 논문은 퍼스의 범주론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호 활동 내에서 규명되는 자아성을 기호적 행위주체성의 두 가지 차원인 실천적 차원과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했다.

세미오티카는 지난 1969년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토머스 세비옥(Thomas Sebeok) 등이 주축이 돼 창립한 세계기호학회 공식 학술지로 전 세계 기호학 연구를 대표하는 핵심 저널로 자리 잡아왔다. 또한 동시에 △언어학 △철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기호학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지난 수십년간 해당 분야의 이론적 발전을 이끈 권위 있는 전문 학술지이다. 그 중에서도 드 그루이터 무통(De Gruyter Mouton)에서 발행된 세미오티카는 기호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저널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기호학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대표 저널로 인정받고 있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우리학교 총동문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지난달 24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 룸(Sapphire Ballroom)에서 이번 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김덕술(아시아·일본 81) 제35대 총동문회장 및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의 취임식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덕술 제35대 우리학교 총동문회장

해당 행사에선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 이연향(통번역·한영 89)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하 이 통역국장)과 박시복(서양어·노어 75) (주)세도캠핑 대표(이하 박 대표)를 선정했다. 이 통역국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외교 무대에서 핵심 통역을 맡아 탁월한 통역 역량으로 국가 외교 발전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박 대표는 글로벌 캠핑 문화를 선도해 온 공로를 바탕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총동문회는 김효순(사범·영교 82) 원장(이하 김 원장)과 송민경(정치행정전문·외교안보 15) 미8군 지원단 교육실장(이하 송 실장)을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원장은 20여 년간 중국 상해(上海)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발전과

나눔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송 실장은 사이버한국의국어대학교와 주한 미8군 지원단 간 위탁교육 및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학교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은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총동문회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중 국가 및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둬 우리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상하는 시상식이다. 지난해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는 홍희희(통번역·스페인 83) 뉴코리아진흥(주) 대표가 선정돼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으로는 서경교(사회·정외 78)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우리학교 선발 정보 비공개, 원활한 선택을 위해선

지난달 △국제 교류 선발△교직 이수 인원△이중 전공△전과 학생 배정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위 선발 과정에서의 학점 커트라인 혹은 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학생 진로 계획 편의와 투명한 선발을 위해 △선발 정보 공개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선발 정보 공개 현황

△국제 교류 선발△교직 이수△이중 전공△전과 선발은 일반적으로 △면접 점수△외국어 성적△학점을 통해 선발된다. 우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제 교류 선발은 학교별 지원 자격의 최소 학점과 외국어 점수를 공개한다. △교직 이수△이중 전공△전과의 선발 역시 최소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앞서 언급된 모집 인원과 최소 기준에 한정돼 직접적인 지원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정보를 참고하나 이는 익명성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선민(영어·ELLT 24) 학생은 “이중 전공 지원 시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점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탈락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라며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선택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에타나 소문에 의존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공식 정보 의존은 정보 오염 및 학생 간 정보 격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국제 교류 선발과 관련해 “교환학생을 지원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학교별 모집 인원이 한두 명에 그치기 때문에 합격자 학점 커트라인 혹은 영어 성적 공개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공식 자료가 공개된다면 에타나 주변 정보보다 참고하기 좋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내의 선발 역시 일종의 입시이기 때문에 전면 공개는 쉽지 않다. 매해 지원하는 학생과 선발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무조건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의 의견이다. 학종지 측에서 밝힌 정보 공개의 기준은 학생이

전공 제도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개별 수치 정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학점 커트라인과 지원율이 해당 학기 지원 규모와 여석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며 과거의 수치를 독립적인 기준처럼 제시할 경우 고정된 최소 기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과 혹은 이중 전공의 경우 학점 커트라인 뿐 아니라 면접 혹은 학교 내부 기준이 포함돼 정량 평가가 어려운 것 역시 그 원인이다. 정보 공개로 지원 시 학생들이 미리 단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떤 정보를 공개 혹은 비공개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선발 정보 공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실제 지원에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발 정보의 실질 경쟁률 및 학점 커트라인 공개는 학생들의 합리적 지원과 효율적인 준비를 돕는다는 점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학생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매년 전과 신청 현황을 발표한다. 전과 관련 학과 및 학년별 △지원 수△지원율△정원 수를 공개해 지원 학생이 실질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 역시 전과와 관련해 매년 학과 및 학년별 △경쟁률△모집 인원△접수자 수를 발표한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는 매년 당해 최종 경쟁률과 함께 선발 정보의 학점 커트라인을 공개한다. 전과 및 복수전공 선발 이후 전형 현황 자료에서 △모집

△지원△학점 커트라인△합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 재학생 B씨는 “복수전공 지원 시 공식 정보를 통해 학점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원 전 1학년부터 목표 학점으로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복수전공을 준비할 때 여러 학과 중에서 고민했으나 학점 커트라인으로 합격 여부를 예상해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로 선택지를 줄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합격 여부 예상과 고민 축소에 도움이 돼 효율적인 진로 계획 설계가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교류 선발△교직 이수△이중 전공△전과 선발에서의 경쟁률 공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선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무조건적 공개나 전면 비공개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정보 공개가 학생 지원에 보조될 수 있고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측과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볼 시점이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후속보도

축소된 FLEX, 새로운 문제점들은

지난 1098호에선 우리학교 언어 능력 시험 FLEX*의 문제에 대해 다뤘다. 대다수 어문학과에서 FLEX를 졸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인한 시험 준비의 어려움과 타 어학 시험보다 떨어지는 공신력 문제를 지적했다. 지

난해 변화한 FLEX 시행 횟수와 학과별 졸업 요건을 바탕으로 △FLEX 시험의 변화와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FLEX 시험의 변화와 문제점

매년 4회 시행됐던 FLEX 시험이 지난해부터 매년 2회 시행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급격한 시행 횟수 축소와 접수 일정 변화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졸업을 앞두고 FLEX 일본어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시행 횟수가 줄어들었다”라며 “다행히 FLEX를 제외한 새로운 인정 시험이 생겼으나 그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전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들이 FLEX 신청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으나 돌연히 변경돼 신청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응시 인원 감소에 따른 시행 축소는 졸업 요건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FLEX 외 대체 시험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FLEX 시험 시행 횟수 축소 이후 일부 학과는 조건 없이 타 어학 시험 대체를 허락했다. 일본학대학은 지난해부터 기존 FLEX 일본어 듣기·읽기 700점 이상에서 JLPT**N1 120점 이상으로 졸업 요건 대체가 가능해졌다. 완전 대체가 아닌 일정 조건 아래에서 FLEX 대체가 가능한 학과도 존재한다. 프랑스어학부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학과 졸업시험 60점 이상△DELF***B2 이상△DALF**** C1 또는 C2로 바꿀 수 있지만 듣기와 읽기 영역은 FLEX 백분율 기준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FLEX 응시가 필수다. 소수어과의 경우 FLEX 이외의 대체 어학 시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어과는 졸업시험이 FLEX 듣기 500점 이상으로 FLEX 시험 시행 감소를 학생들이 그대로 책임져야 한다. FLEX 시험 횟수 축소에 이어 학과별 졸업 요건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 졸업 요건 충족의 안정을 위해 학생들의 수요를 유동적으로 반영한 FLEX 시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타 대학 사례로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11월 총학생회와 관련 부처의 논의를 통해 교내 외국어 관련 시험을 확대했다. OPIc****시험을 매달 4회에서 6회로 확대했으며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던 TOEIC Speaking을 정기 시험으로 바꿨다. 이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어 시험 시행 횟수를 조정할 긍정적 사례다.

FLEX 기관 역시 시행 학과 및 수험생 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가 실제 운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기관과 학교 측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수 및 시험 관련 일정 변경 시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변동 공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학과별 FLEX 사용 기준 역시 체계적으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과별로 시험 영역과 대체 시험 여부를 통일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FLEX 시험은 외국어 특화 대학인 우리학교의 강점을 담은 시험이다. 시험의 효율적인 실행과 학생들의 요구 반영이 이뤄진다면 FLEX는 27개의 언어를 아우르는 우리학교만의 외국어 인증 시험이 될 것이다. 학생 측의 수요를 반영해 단순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시험이 아닌 공신력 있는 어학 시험으로 자리 잡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인 어학 능력 시험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공인 일본어 능력 시험
 ***DELF(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 공인 인증 시험
 ****DALF(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 공인 인증 시험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다국어 언어 말하기 어학시험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달라진 수강신청 방식... 편의 속 남아있는 한계, 향후 과제는?

우리학교는 지난 1월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됐던 기존 수강신청 방식과 더불어 사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동시 접속자 집중 완화를 통한 서버 과부하 방지 및 매크로(Macro) 이용 감소 등 공정한 수강신청 환경 조성 등을 도입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선 기준보다 수강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경된 수강신청제도 현황△사전수강신청제도의 양면성△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변경된 수강신청제도 현황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까지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을 운영해 왔다.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은 각 학년별로 지정된 수강신청 날짜에 신청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수강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동시간 접속자가 많을 경우 서버 과부하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 수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강신청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사전수강신청제도는 본 수강신청 전 원하는 과목을 미리 신청한 뒤 신청 인원이 수강 정원 이내일 경우 해당 과목을 자동으로 수강 확정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처럼 선착순 경쟁을 통해 즉시 수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수요를 파악한 후 정원 이내일 경우 수강을 확정하고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 차원의 증원 또는 추가 분반을 검토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번 학기 수강신청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1·2차 사전수강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기간 내 신청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원 이내 강좌는 자동으로 확정됐다. 특히 1차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학과가 수강정원을 증원하거나 추가 분반을 개설할 수 있어 수요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했다. 이후 마지막 3차 수강신청은 1·2차에서 확정된 과목을 제외한 잔여 강좌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가 변경된 수강신청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약 44%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유빈(서양어·이탈리아어 25)씨는 "비인기 강좌는 사전수강신청으로 미리 확정해 두고 인기 강좌만 3차 때 집중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종지 관계자 A씨는 "이번 변경된 수강신청제도를 통해 서버 과부하 방지와 매크로 이용 감소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히며 사전수강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이번 수강신청은 이전 학기보다 서버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제도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했다. 더불어 "매크로 관련 정보처 측에서도 매크로 사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시스템 공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B씨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은 기존 수강신청과 비교해 혼란 없이 안정적이었다"라며 만족을 전했다. 이는 학종지가 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버 안정화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사전수강신청제도의 양면성

이처럼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서버 운영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한계와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선착순 풀림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전수강신청제도는 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수강이 확정되는 구조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교양 및 전공 수업은 1·2차 사전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해당 과목들은 수강이 확정되지 못한 채 3차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넘어가 학생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쟁에 참여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전수강신청이 존재하더라도 인기 강좌의 경우 결국 선착순 경쟁이 반복된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찬민(자연·수학 23)씨는 "수강하고 싶은 인기 교양 수업이 있었지만 3차까지 가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전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라며 "사전수강신청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리는 수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잡기 위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증원 및 추가 분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사전수강신청제도 운영 절차에 따르면 1차 신청 결과 신청 인원이 수강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강좌의 정원을 증원하거나 추가 분반 개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론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증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증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 다수 게시됐다. 또한 외대학보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사전수강신청 과정에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학교 조교 C씨는 "1차 사전수강신청부터 3차 수강신청까지의 기간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짧은 시간 안에 추가 교·강사를 섭외하거나 교무처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증원이나 분반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증원을 진행하려면 수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충족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증원이 어려운 구조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사전수강신청제도가 수요를 반영해 정원 조정을 가능하게 한단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원 및 분반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편입생이 사전수강신청 단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편입생은 기존 재학생들과 동일한 일정에 맞춰 사전수강신청에 참여할 수 없기에 기존 방식의 선착순 수강신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학년별 정원이 별도로 배정돼 있는 수업의 경우 기존 재학생들은 사전수강신청을 통해 시간표를 일부 확정할 수 있는 반면 편입생은 선착순 신청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수강신청제도의 혜택이 모든 학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사전수강신청제도는 인기 강좌의 경우 3차 선착순 수강신청 단계에서 경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착순 풀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인기 강좌에 대한 구조적 공급 확대를 병행해 볼 수 있으나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타 대학의 수강신청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마일리지제(Mileage)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학년과 이수 학점에 따라 학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한 뒤 학생이 원하는 과목에 해당 포인트를 분배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즉 개인이 각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해 마일리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정원 초과 시에는 마일리지를 더 많이 투자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클릭 속도 경쟁을 줄이고 학생의 선택과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착순 경쟁 완화 대안으로 참고해 볼 수 있다. 연세대 재학생 D씨는 "선착순제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줄어들고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 불만이 크지 않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1·2차 수강신청 과정에서 증원 및 추가 분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증원과 분반 확대가 필요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증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만 복잡해졌을 뿐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불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측은 사전수강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강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정원 확대와 추가 분반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과가 증원 및 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증원 인원 기준 역시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재정 및 실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증원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일정 부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 인력 부족 및 강의실 수용 한계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측은 편입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편입생을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 일정이나 정원 배정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강신청제도는 모든 학생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긴 어렵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번 수강신청제도 개편은 학생 편의와 공정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남아 있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보완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잔디 운동장, 외부인과의 균형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동대문구와 협력해 잔디 운동장을 건립했다. 잔디 운동장은 기존 모래 운동장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해 △동아리 활동 여건△체육 수업 여건△편의시설 이용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외부인 유입이 증가하며 학생 활동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잔디 운동장 설립 배경 및 변화△외부인 출입 현황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잔디 운동장 설립 배경 및 변화

우리학교 설캠 잔디 운동장은 제58대 총학생회 여운(이하 여운)의 공약으로 설치됐다. 지난 2023년 3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잔디 운동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 본부와 동대문구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2024년 1월 동대문구청과의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3월 동대문구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여운이 공식적으로 잔디 운동장 건립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시간 우선 배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잔디 운동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4년 여름방학 동안 공사가 진행돼 △가로등 20개소△인조 잔디△조깅 트랙(Joggingtrack)△추가 시설 관리용 CCTV△2면 펜스가 설치됐으며 정문 경비실 뒤 야외 화장실과 농구장을 보수했다.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92.3%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잔디 운동장은 기존 모래 운동장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97.4%의 학생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과거 모래 운동장에 비해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편의시설 이용 환경 개선△체육 수업 및 동아리 활동 여건 개선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학생△인근 주민△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등 외부인 이용이 증가했다. 실제로 앞서 설문조사에서 '잔디 운동장에 외부인 출입이 많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91.9%의 학생이 '외부인이 많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외부인 출입 현황과 문제점

잔디 운동장 건립과 함께 외부인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체육시설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공간 배정 제1절 대운동장 제9조(대운동장 사용 원칙) 제1항에 따르면 대운동장은 학부생에게 우선적인 사용권이 있으며 외부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학 본부의 허가를 받은 행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디 운동장 개장 이후 해당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언급된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부인 출입이 학생들의 정규 활

동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6.4%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설캠 중앙동아리 외대축구부 소속 김인호(중국·중외통 24, 이하 김 씨) 씨는 "△경희대 학생△인근 중고등학교 학생△주민 등이 훈련 시간에 축구하는 경우가 잦아 지속적으로 운동장 이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외부인으로 인해 훈련을 잠시 멈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아리 정기 활동 시간과 외부인의 이용이 겹치면서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둘째로 시설 훼손과 이에 따른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 출입△자전거 진입△킥보드 진입 등 잔디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1.2%의 학생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본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실제로 목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인조 잔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잔디 관리△보수△유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축구 동아리 활동 중 외부인이 공에 맞는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 중인 선수와 트랙에서 러닝을 하는 이용자의 동선이 겹쳐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씨는 "훈련 중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있어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된다"라며 "실제로 훈련 도중 공이 유모차에 맞는 일이 있었고 곧바로 보호자께 사과드렸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 이냐'는 우려를 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설캠 외대야구부 소속 오명호(아시아·터키어 24)씨는 "외부인이 산책을 나왔다가 공에 맞는 사례가 몇 번 있어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딱딱한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크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운영 기준과 이용 수칙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학교 홈페이지엔 체육시설과 관련해 대외 안내만 제공돼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이용 수칙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앞서 설문조사에서 '현재 대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안내 사항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9.3%의 학생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정규 활동 시간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각 동아리의 정기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외부인 이용 가능 시간을 구분하고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와 외부인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출입△자전거 진입△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을 제한하는 기본 이용 수칙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시설 안전△외부인 출입△이용 관리를 담당할 인력 배치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운동장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홈페이지 내의 운동장 전용 게시판을 통해 개방 시간과 외부인 이용 제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운동장 전용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교내 구성원과 외부인을 구분해 예약 방법과 이용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우리학교 역시 △운동장 이용 가능 시간△이용 안내△외

부인 통제 기준△안전 수칙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명확히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적하다. 아울러 운동장 주요 진입로와 이용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관련 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이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외부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여 원활한 운동장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전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학교는 양쪽 끝대 뒤편 2면에만 펜스가 설치돼 있어 펜스가 없는 트랙 구간과 관람석 구간은 공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랙과 관람석은 외부인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동장 외곽을 중심으로 한 펜스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트랙 구간과 경기 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펜스를 보강할 경우 공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자 간 동선 충돌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어린이대공원 잔디 구장은 운동장 외곽 4면에 펜스를 설치해 공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 다만 펜스 설치가 캠퍼스 조망권을 저해할 수 있던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높이△디자인△설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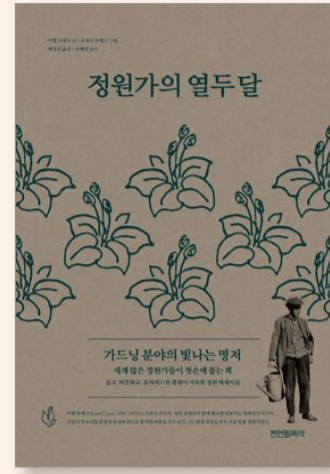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대문구청△총학생회△학교 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민원△시설 훼손△안전 문제 등을 상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운동장은 △대학△지역사회△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과 권의 보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공 공간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되 학부생의 정규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정비해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이용 환경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체코

<정원가의 열두 달>

- 생명을 싹틔우는 인간의 계절 -



정원 가꾸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Čapek)는 아마추어 정원가로서 정원을 가꾸는 열두 달의 시간을 기록했다. 책엔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에 대한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변화무쌍한 날씨에 울고 웃고 씨앗을 심고 싹을 뒤집는 그의 분투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하다.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태도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책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간다. 식물 자라고 잠에 드는 열두 달의 시간은 변함없는 생명 순환의 이치다. 겨울을 견디지 않고선 봄을 맞을 수 없듯 생명은 싱그런 열매를 그리며 거름이 될 인고의 시간을 전제로 한다. 싹이 트지 않는 씨앗에 기지 못한 서리예상 밖의 병충해, "열정은 반복되는 성공을 통해 기운을 얻고 새로운 실패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라는 그의 말처럼 모든 시행착오는 다음 계절의 거름이 된다. 머지않아 자라날 작은 새싹은 역경을 견뎌낸 승리의 결실이다. 흙속에서 버틴 작은 씨앗의 뿌리가 꽃으로 이어지는 일은 인간이 삶을 가꾸는 일과 닮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으나 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격변과 불안 속에 놓였다. 시대의 혼란을 운명으로 겪은 문인이 선택한 것은 흙과 씨앗의 세계였다. 그는 정원이란 공간에서 하루하루의 희망을 가꾸며 삶을 지탱하는 의지를 기른다.

정원가는 마냥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다. 새소리를 벗삼아 자연을 음미하는 고상한 관조자가 아니다. 그는 흙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과정과 근원에 뿌리를 두고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흙속 깊이 자리잡은 생명을 기다리며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이한다.

그는 싹이 트는 현상을 행진에 비유한다. 라일락(Lilac)이 경쾌한 발걸음과 함께 앞장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뒤를 따르며 봄은 웅장한 열병식처럼 전진한다. 그 다채로운 자연의 개선 행진 속에서 정원가는 방관자이면서도 지휘자다.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인간은 조건을 마련하고 삶을 가꾼다.

차페크는 자연의 끝을 단절로 보지 않는다. 계절은 스러짐을 거쳐 다시 이어지고 생명은 다른 모습으로 순환한다. 반복된 봄을 맞이하며 생명의 숲을 일구는 정원가의 모습은 인간이 지닌 불굴의 의지와 열망을 보여준다. 고대하던 꽃이 피어난 순간 우리 살아 있으며 동시에 성장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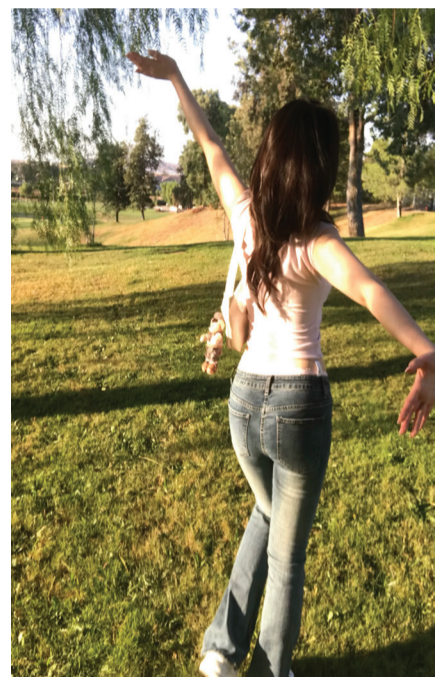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씨앗을 심고 저마다의 정원을 가꾼다. 나의 작은 정원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또다시 다가올 한 해를 위해 삶을 일구며 다음 계절을 기다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교환학생, 나를 알아가는 시간

학창 시절 막연히 대학 생활을 그려보면 늘 미국 교환학생이 있었다. 내게 있어 미국 교환학생은 오랜 꿈이었고 한국과 다른 캠퍼스 분위기와 학생들 속에서 나를 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도전을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지지만 난 미국 대학의 캠퍼스 생활을 직접 경험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다.

내가 5개월간 생활했던 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San Bernardino County)에 위치한 레들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Redlands)였다. 들어본 적 없던 레들랜드란 도시와 교환교 목록에서 보았던 신규 대학 표시는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귀국 보고서나 국내 블로그에서도 정보를 찾기 어려워 지원을 망설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대학 생활에 설레기도 해 결국 지원했다.



레들랜드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다. △매주 소로리티(Sorority)*와 프래터니티(Fraternity)**가 주최하는 파티스윗메이트(Suitemate)와 본 영화△열정적이고 친절했던 교수님들△테니스 수업과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가 이 모든 경험은 5개월이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던 모습은 내가 가진 배경과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ASA(Asian Student Association)에 참여해 우리학교와 내 해외 경험을 소개했고 학교 풋볼 경기 날엔 ASA 친구들과 매점에서 간식을 파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섯 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봉사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작은 역할이지만 학교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학과와 캠퍼스 생활뿐만 아니라 여행 역시 교환학생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난 △뉴욕(New York)△라스베이거스(Las Vegas)△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샌디에이고(San Diego)△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했다. 특히 뉴



욕에선 짧지만 잊을 수 없는 5일을 보냈다. △미술관△박물관△브로드웨이(Broadway) 뮤지컬△브루클린교(Brooklyn Bridge)△빈티지 가게△소호(SoHo) 거리△화려한 야경을 둘러보며 뉴욕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잠시 머물렀던 이방인이었지만 그 공간에 존재

하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중국어 전공생으로서 영어권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들랜드에서의 반년은 남들과 다른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항상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오던 나에게 오래전부터 꿈꾸던 미국 교환학생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기회였다.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고민해 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한 학기였다.

*소로리티(Sorority): 미국의 대학교 등에 있는 여성들의 사적 친목 모임

**프래터니티(Fraternity): 미국의 대학교 등에 있는 남성들의 사적 친목 모임

유채원(중국 · 중외통 23)

학군사관(ROTC)?

학군사관은 대학생 중 우수인원을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과 군사지식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생활을 병행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장교가 될 수 있는 과정

1961년, 서울대 등 16개 대학에서 시작된 학군사관은 현재 전국 10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교 양성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주요 활동

1학기	입단 및 승급식 국내 전직지 탐방, 체육대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교육)
여름방학	하계입영훈련 (4주) * 육군학정 군사학교에 입영
2학기	해외 전직지 탐방 무제 (학군사관후보생 축제)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교육)
겨울방학	미 ROTC 설치대학 해외연수 (우수 후보생) 기초군사훈련 (4주 / 학군단 입단 시) 학군장교 일관식 / 일관 축하 행사

자유로운 대학생활

- 군사교육(훈련) 대학교 학점 인정
학기 중 군사교육과 병행 중 임명훈련은 학점으로 인정 (대학별 상이)
- 자기개발을 위한 휴학
휴학, 이학연수 및 인턴십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 휴학 가능
- 교환학생
외국 대학에서 군사학 과정 이수 시 휴학 없이 교환학생 가능
- 임명훈련 일정 조정
각 학년에 해당하는 임명훈련 참석 제한 시 임명훈련 일정 조정 가능 (승인 시)
- 편입학 가능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로 편입학 가능
- 아르바이트 가능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아르바이트 가능

다양한 경험

- 히와이, 괌, 제주도, 독도 등 국내외 전직지 탐방
- 우수 후보생, 미국 ROTC 설치 대학 해외연수
- 한미 ROTC 후보생 동반 훈련
- 초급장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훈련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 시 2년간 약 2,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으로 인정적이고 든든한 대학생활 가능!

구분	단기복무 장려금	학군생활 지원금	교보재비	훈련비 (등록금)
3학년	1,200만원 (연세)	360만원 (80명 X 20개)	183만원 (연 6.5만 X 24개)	150만원
4학년			165만원	

장교 임관 시 혜택

- 다양한 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장교 임관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 부여 전역 시 특별채용전환 지원 가능, 채용 시 우대
- 사회 도약 전 특근 마련 가능
군인공제회를 통해 회원직급어, 목돈 수탁저축 등 우대 금융상품 가입 가능
* 연복리 적용 높은 이율
- 장기복무 선발 시 장기근무 도약자금 가입 가능 (3년 만기 시 약 2,300만원)
- 인적 네트워크
각계각층에서 24만명의 ROTC 동문 활약
* 장·관계 약 15,700명, 장·계계 약 57,000명
*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약 11,200명
- 군속소 지원
독신/가족 간부 숙소 지원으로 타 직업 대비 주거비용 절감
- 장기복무 시 자기개발 기회 제공
국내외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의(치)대 및 로스를 입학가능
국외군사교육 및 외국어 교육지원

ROTC 선발 안내

모집대상

- 학군단 설치 대학의 남녀 1, 2학년 재(휴)학생
- 5년제 학과는 2, 3학년 재(휴)학생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5세 이하
- * 체대 군인복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모집시기

- * 1년에 2회 (연번기: 3-4월 / 후번기: 9-10월)

선발과정

- 지원서 접수: 모든 도전을 첫걸음에서 시작한다!
- 체력/성적 제출: 자신의 체력/대학성적 제출!(Check)
- 인성검사: 경담을 찾는 시험! NO! 부당! NO!
- 신원조사: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
- 신체검사: 대학생활 중 건강검진 기회!
- 면담평가(대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면접장형!

합격!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한국외대 학군단 119 ROTC

☎ 02)2173-2595

@hufs_119rotc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여전한 청년 노동권 사각지대...대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청년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반복되고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들이 적지 않다. 고스란히 청년층의 실질 소득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청년 노동권 침해와 관련해 △청년 노동권의 현주소 △열악한 청년 노동권의 원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청년 노동권 현주소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3.44% 상승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에 비해 2.9% 올라 10,320원이 됐다. 그러나 상승하는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노동권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드러워져 있다.

청년유니온의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율은 22.5%였고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71.7%에 달했다. 이러한 노동권 침해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17.5%였던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4.3%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위반이 일어났다.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9.8%로 수도권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인 17.5%의 두 배를 상회했고 업종별로는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같은 법정 임금 미준수 문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휴게 시간 미보장 및 근로 시간 미준수로 인한 과로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 2024년 진행한 알바 권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들 중 31.1%가 △강제 근로△근무시간 위반△연장 근로 등을 고용주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4.5%는 갈등의 원인으로 임금 체불을 꼽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임금 체불△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 위반△휴게 시간 미보장 등의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과로사 사건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 씨는 지난해 인천점 신규 매장 오픈 업무를 담당하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고강도의 근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

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와 과도한 근무 일정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열악한 청년 노동권의 원인

20대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 인식 미비와 사적 친밀성이 바탕이 된 고용관계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학교 재학생 B 씨는 “아는 선생님 소개로 시작한 학원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이후 임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며 “스스로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내가 을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우리 학교 재학생 C 씨 역시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일했지만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지 몰랐기에 그냥 일했다”라고 답했다.

노동권 침해의 복잡한 구제 절차와 처벌 미비 또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 학교 재학생 D 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총 세 군데서 노동권 침해를 당했다”라며 “그중 한 가게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 나온 단 이유로 매달 월급 지불을 미뤘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금 체불을 신고하게 되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학생의 신분이라 시간을 쓰는 게 어렵고 신고 후 사장님과 3차 대면 과정 역시 부담스러웠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금 체불이 여러 번 일어나 신고를 당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무탈하게 영업 중이라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최대 25일을 조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마저도 2차에 걸쳐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입건과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노동권 침해와 관련해 일차적인 판단을 담당하고 진정을 위해서는 여러 증빙 자료

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권 침해라고 느꼈다고 해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청년 노동권 침해는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과 사적 친밀성△장기간의 절차로 인한 신고 부담△처벌의 실효성 미흡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노동권 침해는 삶의 질과 실질 소득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힌다. 앞서 노동권 침해를 당했던 D 씨는 “지속적인 임금 체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상당한 시간을 임금 체불 문제에 소모해야 한다는 점과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점장의 짜증을 감당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노동권 침해의 구제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상 청년들이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구제 절차로는 △민사소송△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제기△형사고소 등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유일한 실질적 수단이다. 이에 △고용주에게 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진정 절차 간소화△청년 대상 법률 지원 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9년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이 없으면 근로 시간과 초과근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라며 모든 회원국에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을 명령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고용주에게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을 의무화할 경우 진정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증빙하기 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 배상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층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노동권을 침해했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상습 및 고의적인 체불 임금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만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보다는 여건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그 요건이 △명백한 고의적 체불△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1년간 3개월 이상 체불로 한정되어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상 3개월 체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명백한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기에 요건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을 통해 임금 체불을 범죄로 규정하고 체불 임금의 두 배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권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당수의 청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노동권 침해 구제 절차△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보장 의무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에 노동권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장애인식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노동권 교육을 포함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구제 절차△주휴수당 요건△휴게시간 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초등 단계에서 모의 노사 교섭 활동을 실시하고 프랑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단체교섭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등 노동 문제를 정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제도적 미비 속에서는 청년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실질효능 있는 처벌△제도적 장치의 정비△체계적인 권리 교육을 통해 청년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줄어든 미래를 희망해본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4학기)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국민 건강 위한 정책인가, 새로운 조세인가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X(구 트위터)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설탕세가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을 감소시키고 설탕세로 걷은 세금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할 수 있다 주장한다. 반면 설탕세 도입이 실제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자 및 기업

의 금전적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가 열리며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가운데 이에 대해 김정현 우리학교 투어리즘&웰니스학부 교수와 알아보자.

김정현 우리학교 투어리즘&웰니스학부 교수

Q1.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당류가 과도하게 포함된 식품이나 음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며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부터 가당 음료의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Q2. 우리나라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설탕 섭취 증가와 함께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6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설탕 과잉 섭취는 이러한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질병 발생 이후의 관리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 대안 중 하나로 설탕세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Q2-1.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116개국과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설탕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설탕세 도입될 경우 음료나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식품 산업계의 비용 증가와 반발△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던 역진성** 논란△전반적인 정책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국제적 확산 속도에 비해 국내에선 설탕세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더디게 진행된 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다른 나라에선 설탕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선 주로 가당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리터(Liter)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기보다 가격 신호***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제조업체가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와 당류 소비 감소가 설탕세 도입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Q3-1. 설탕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선 설탕세가 실제 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었나요?

실제로 설탕세가 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의 경우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이 첨가된 음료 소비가 최대 1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돼 설탕세가 단순한 소비 억제 정책을 넘어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4. 설탕세의 효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가당 음료의 판매량과 섭취량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론 △당뇨병 유병률△비만율△초중치 발생률 등 건강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설탕세가 단순히 소비 억제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레시피를 개선하는 등 제품 개혁을 유도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세로 확보된 재정 수입의 규모와 그 재원이 건강 증진이나 취약 계층 지원 등 정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Q5. 설탕세 도입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슈가플레이션(Suga-

flation)입니다. 이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과자나 빵 등의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설탕세로 인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Q5-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설탕세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도입 단계부터 정교한 보완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저당 혹은 무가당 식품에 대한 보조금이나 가격 인센티브를 병행하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을 단계적이면서 당 함량에 따라 차등화된 방식으로 도입해 소비자와 산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은 일반 재정으로 흡수되기보다 △건강 증진△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저소득층의 건강한 식품 접근성 확대 등 명확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운영해야 합니다.

Q6. 설탕세가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주장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고당분 음료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설탕세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경우가 보고돼 이들의 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 개선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설탕세 도입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 구매율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Q7. 설탕세로 인해 역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설탕세는 단독 정책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도입 단계에서부

터 설탕세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저소득층에 미칠 역진성 문제입니다.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신체 활동 장려 사업△저소득층 건강 증진 프로그램 △학교 급식 지원 등에 재투자해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 긍정적인 건강 효과로 환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Q8. 설탕세 도입 시 기업들이 가격 인상 외에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설탕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은 가격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레시피를 조정해 설탕 함량을 낮추거나 저당 혹은 무가당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소용량 제품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도 대응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설탕세는 소비자 행동 변화뿐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의 제품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맛의 강도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첨가당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동시에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저당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가격 인상 중심의 대응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탕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보건: 지역사회 노력의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효용을 향상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
**역진성: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 계층 간 소득분 배가 역전되는 현상
***가격 신호: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 혹은 하락시키고 생산자의 공급을 증가 혹은 하락시키도록 하게 만드는 신호
****건강 불평등: △교육△성별△소득△지역△직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인구 집단 간 건강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4.13.(월) ~ 4.24.(금)	2026.6.1.(월) ~ 6.12.(금)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5.22.(금) 16:00 예정	2026.7.10.(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7.17.(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역사교육 • 수학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일반사회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 컴퓨터교육 • 중국어교육 • 유아교육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영어교육 • 독서논술교육 • 문학콘텐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동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월) ~ 6. 17(수)
교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세 전액 장학금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교차장 및 교차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역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면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역사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나온 결심이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던 것을 깨달았다. 그 무렵 대외활동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학보사 활동을 추천받았다. 글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다양한 삶을 마주할 수 있겠다던 기대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비추고 워치독(Watch Dog)*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목적이란 말이 깊이 끌렸고 그 말이 내가 부딪힌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겠다던 생각에 학보사를 지원했다.

추가 모집으로 들어온 학보사 활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몇 주에 걸친 방중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숙지해야 했고 수업과 학보사를 병행하기 위해 매번 왕복 6시간의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밤을 새며 기사를 마감하고 홀로 학보사실에 남아 아침을 맞이하는 것 역시 외롭고 지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기사는 중립성을 위해 사건을 배제해야 한다.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 없이 △기사 내용의 취사선택△단어 표현△인터뷰 내용의 편집만으로 기사의 사견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가진 영향력을 신경쓰며 퇴고를 거치는 과정은 낯설고도 어렵게 느껴졌다. 어떤 편 기사 구성의 한 부분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독자의 시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다. 세 번의 발간을 지나도록 여전히 기사 쓰기가 어렵게만 느껴졌고 정작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기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보사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글쓰기를 어려워했지만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특히 취재를 위해 진행했던 인터뷰 과정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층 넓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기사 분석△기사 작성 연습△필사연습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

학보사에서 보낸 시간들은 언론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화제성이 큰 사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 주목하고 불편한 진실을 가꺼이 마주하는 자세. 그것이 내가 학보사에서 배운 것이었다. 학보사 활동을 두 학기째 보내고 있는 지금도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순간의 작은 빛에 그칠지라도 언젠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생활의 일부분으로 시작했던 학보사 활동이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됐다. 학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변해 있었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처음 학보사를 추천해 준 지인 군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워치독(Watch Dog): 정치 및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



이하은 기자

[책 '주마등 임종 연구소'를 읽고] 죽음도 커스텀(Custom)하는 시대

흔히 죽음의 순간엔 지나온 삶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을 주마등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 주마등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보정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박문영 작가의 소설 '주마등 임종 연구소'는 이러한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한다.

이 소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원하는 마지막 기억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는 연구소의 이야기를 다룬다. 노후 준비에서 나아가 사후 준비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다다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지원자가 선택한 단속 구간들을 더 생생하게 확장할 수 있던 점이다. 복원도 가능하며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해 상담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회상을 돕는 등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종을 맞이할 때 다시 행복했던 순간에 존재하기 위해 그 순간을 찾는 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사후 장례 처리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만 보이는 연구소의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부작용은 미미하던 광고와 다르게 지원자 한 명이 임종 체험 과정 중 발작을 일으키고 깨어난 후에도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천미조는 해당 사건을 더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 소장은 조용히 덮는 것이 최선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다.

이 소설은 안락사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의 연장선을 공상과 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란 개념은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인간의 존엄성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다. 죽

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찬성 측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생명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반박한다. 주마등 임종 연구소는 가장 두려운 죽음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치환하는 생각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지운 안락사를 보여준다.

안락사의 윤리적 논쟁을 넘어 이 소설이 보여주는 임종의 기록 또한 흥미롭다. 지난해 국제도서 캠프에 투고했던 '장미 박람회'는 한 열정적인 방송 감독이 사연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큐멘터리로 담으며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밝혔다. 주마등 임종 연구소 역시 복수를 하며 혼란과 고통의 감정 속에서 죽음을 맞는 지원자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숨이 멎기 직전까지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눈을 감는다.

소설에선 다음과 같은 주요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가장 행복한 순간에 죽을 수 있다면 역으로 그 순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어진다. 이 책을 읽으며 향후 나의 주마등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건 어떨까.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고] 시간을 되돌리면 행복에 닿을 수 있을까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고]

시간을 되돌리면 행복에 닿을 수 있을까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은 시간 여행 능력을 가진 주인공 팀(Tim)이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리처드 커티스(Richard Curtis) 감독 특유의 따뜻한 유머와 감동이 잘 녹아 있는 영화로 인생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21살이 된 팀이 아버지에서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전해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실을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팀은 이 능력을 통해 좋아하던 여자들의 마음을 얻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실수를 바로잡으며 조금 더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 속에서 팀은 메리(Mary)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며 단순히 자신의 행복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아무리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완벽한 하루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 팀은 시간 여행에 의존하기보다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We are all travelling

through time together, everyday of our lives. All we can do is do our best to relish this remarkable ride."이다. 이 대사는 특별한 능

력을 가진 팀뿐만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할 수 없는 우리 역시 매일 시간을 지나며 살아가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 준다. 처음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부럽게 느껴졌지만 이 대사를 듣고 난 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모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바꾸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화는 몇 번이고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반복 끝에 팀이 깨달은 것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태도였다.

이 영화는 거창한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내는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행복이란 완벽한 순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6년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26년 1학기 외대학보 1112~1117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선착순 3월 11일(수)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 의 - 서울캠퍼스: 임재언(010-5673-5907)
- 글로벌캠퍼스: 이하은(010-4598-6672)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새 학기, 새로움이 가득한 출발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봄 내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다시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스물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방학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학교로 돌아오는 재학생·새로운 꿈을 품고 입학한 신입생·대학교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졸업생까지, 저마다 다른 설렘과 다짐을 안은 다양한 학생들이 캠퍼스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지금 우리학교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었는지 이번 1112호와 함께 살펴보자.

먼저 3면에선 우리학교 선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 교류 지원자△교직 이수 희망자△이중 전공 및 전과 희망자 등을 선발하고 있다.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제공된 정보는 한정적이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왜 일부 정보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사에서 조망했다.

4면에선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전수강신청제도에 대해 집중했다. 우리학교 수강신청 방식은 지난해까지 학생들의 속도에 의존하는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해부터 새롭게 사전수강신청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선착순 이전에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인 반면 부정적인 반응 및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여러 보완점이 나타나는 지금 학교는 더욱 실질적으로 수강신청 제도를 개

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면에선 우리학교 잔디 운동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우리학교 잔디 운동장의 경우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체육 수업 및 동아리 활동 개선△편의시설 이용 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제를 몇 가지 남겼다. △시설 훼손 및 관리 부담 증가△안전 사고 우려△외부인 이용으로 인한 충돌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로 지적됐다.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잔디 운동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규율 마련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8면에선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이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JTBC의 독점 중계와 타 방송사들의 소극적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에 기사에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단위의 코리아폴 도입△법제도 개선△정부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올림픽이 모두의 축제가 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됐다. △새로운 마음가짐△새로운 직책△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새로운 지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로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나갈 수 있길 바란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변화의 문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모바일 전환이 늦어졌고, 부서 간 경쟁이 과도했으며, 사일로(silo) 문화가 혁신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때 CEO로 선임된 인물은 창업 신화의 계승자도, 시장을 뒤흔든 스타 경영자도 아니었다. 비교적 조용한 이력의 엔지니어 출신인 사티아 나델라였다. 그의 등장은 화려한 전략 선언보다 “조직이 무엇을 잘못 배우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나델라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노익올(know-it-all) 문화를 비판하고 성장 마인드셋(mindset)과 런잇올(learn-it-all) 문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과평가에 있어 협업과 학습을 강화했고, 부서 간 경쟁보다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를 꾀했다. 무엇보다도, 실패를 숨기는 조직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조직을 지향하였다.

이 같은 문화적 전환은 전략적 선택과도 맞물려 있었다. 나델라 체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경쟁사 플랫폼에도 자사 소프트웨어를 개방하는 등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기존의 자산을 부정하는 식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시장의 신뢰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현재진행형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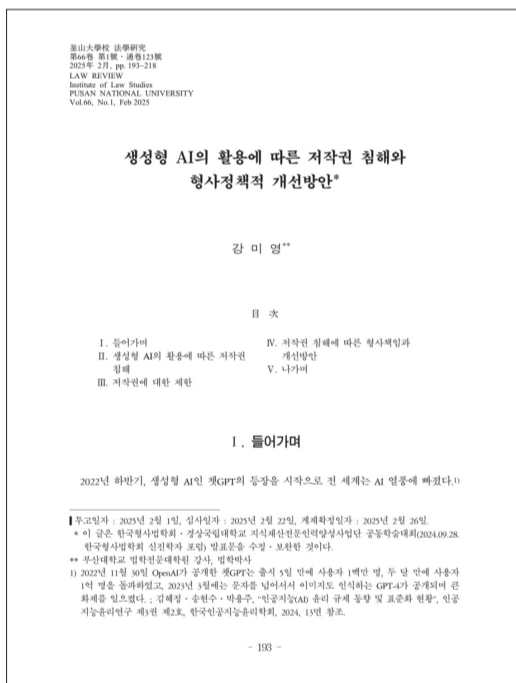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조직의 도약은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전통을 해석하는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리더십의 가치는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조직이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외부의 변화에 맞서기 위해 내부의 사고방식부터 바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험은 오늘날 변화를 고민하는 모든 조직에 귀감이 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오랜 시간 언어, 지역, 문화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했고, 대학은 더 이상 관성에 기대어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때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라 학교가 자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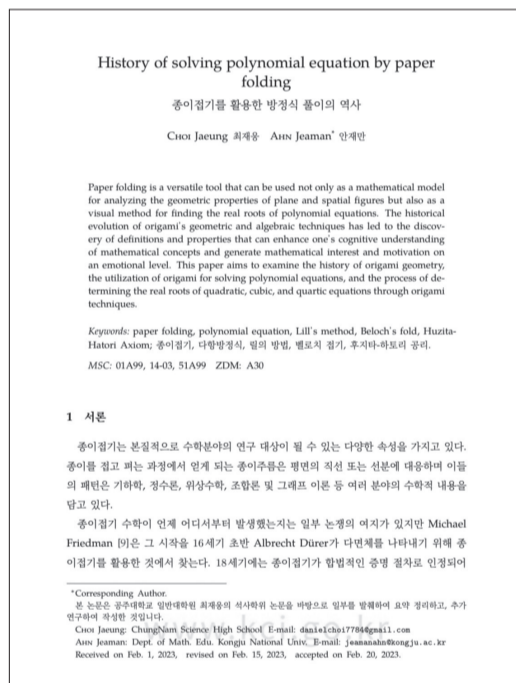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우리대학도 낯선 시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 인물의 역량보다는 공동체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통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미래를 실험의 공간으로 여길 때, 우리의 도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빈(영어통번역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기자들의 추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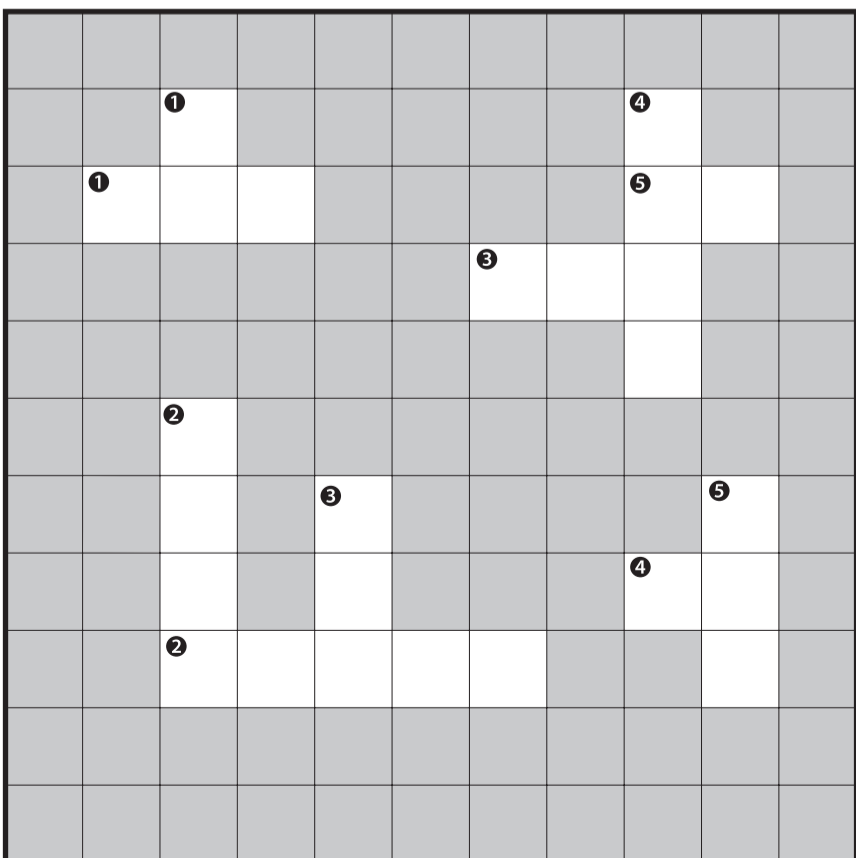


생성형 AI의 활용은 편리함을 주지만 저작권과 관련해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종이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수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도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이접기를 통해 이차방정식뿐만 아니라 삼차사차방정식의 해까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십자말풀이



가로

- 우리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교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지난해 연차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해당 사업에서 3회 연속 우수 평가를 달성했다. (1면 참조)
- 타 대학의 수강신청 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를 운용하고 있다. (4면 참조)
- 김 위원장은 지난 1990년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면 참조)
- 현재 우리학교는 양쪽 끝대 뒤면 2면에만 ○○가 설치돼 있어 ○○가 없는 트랙 구간과 관람석 구간은 공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5면 참조)
- 세미오티카는 지난 1969년 △로만 아람손(Roman Jakobson)△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토머스 세비옥(Thomas Sebeck) 등이 주축이 돼 창립한 세계기호학회 공식 학술지로 전 세계 기호학 연구를 대표하는 핵심 ○○로 자리 잡았다. (2면 참조)

세로

- 보편적 시청권 침해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JTBC의 ○○ 중계를 꼽을 수 있다. (8면 참조)
- 흔히 죽음의 순간엔 지나온 삶이 눈앞에 ○○○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일컫는다. (10면 참조)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으나 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격변과 불안 속에 놓였다. (6면 참조)
- 지난 5년간 ○○○은 매년 평균 3.44% 상승해 왔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비해 2.9% 올라 10,320원이 됐다. (7면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9년 “근로 시간 기록 ○○○이 없으면 근로 시간과 초과근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라며 모든 회원국에 근로 시간 기록 ○○○ 구축을 명령했다. (7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jaewoo@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현재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금융 현장을 넘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김정태

전 신한은행 전임감사 팀장을 만나다

국내 금융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오늘날 은행은 단순한 예적금 업무를 넘어 △기업금융△자산관리△해의 법인 운영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태(중국중국어·91) 전 신한은행 전임감사 팀장은 우리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한 뒤 중국 중앙재경대학(中国财经大学)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금융 실무를 쌓았다. 26년간 금융 현장을 경험한 그는 현재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현장을 넘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김정태 전 팀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국어 시간에 한자 쓰기를 좋아했고 한문 수업을 통해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학 당시에 한중 수교가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북방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와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해 중국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고등학교 시절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던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수를 하며 문과로 전과했고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군 복무 시기가 앞당겨져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생활△동아리 활동△학생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어 실력 또한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채 방향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학년을 마친 뒤 자비로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0일간의 중국 배낭여행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생활에 보다 충실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Q3. 어문 전공에서 금융권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금융권 취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학 내내 언론사 기자 시험을 준비했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고 불확실성도 커 타 업종과 일반 기업 입사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 1학기에 삼성 제일모직에서 중국어 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해 지원했고 중국 텐진(天津)에서의 근무가 잠정 결정되며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은행의 안정적인 급여와 향후 글로벌 금융 시대를 고려해 금융권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경영학이나 상

경 계열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중국에서 쌓은 경험과 전공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금융권 진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4. 재학시절 금융권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활동이 있나요?

당시엔 금융권 취업을 위해 다수의 금융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융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기에 별도의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창 시절 학급 반장과 회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길렀고 중국 유학 시절 홀로 배낭여행을 떠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험의 폭을 넓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는 삼성에서 '동북아 시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주최한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해 당선됐고 포상으로 동북아 지역을 장기간 탐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취업과 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Q5. 금융 현장에서 일하시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은행 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고객의 금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을 때입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각기 다른 사정과 고민을 안고 방문합니다. 제가 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시기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문제에 부딪혀 은행을 찾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고객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한 뒤 여러 대출 상품을 검토하며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안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찾아와 주시거나 지점을 떠날 때 아쉬움을 전해주시는 고객들을 마주했을 때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금융은 단순한 자금 거래를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라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Q6. 다수의 금융 설명회 및 우리학교 중국학대학 특강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각 설명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상이기에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금융 이해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금융은 자선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전달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선 한 사람의 △삼△시행착오△선택 과정에서 나오는 경험은 데이터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 경험과 최근 임했던 신입 직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임하기 전의 과정보다 재직 중 겪었던 △고민△보람△한계까지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Q7. 중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됐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장구 업무를 볼 때 중국인 고객들이 많이 내점하곤 합니다. 이때 따로 번역기를 거치지 않고 중국어로 직접 소통하다 보니 서로 오해도 줄어들고 실제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업무에도 큰 강점이 있습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중국어본으로 직접 검토하며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이미 중국에 다수의 지점과 법인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어 전공자는 국내를 넘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Q8. 앞으로의 계획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숙인△재소자△청소년 등과 같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학과 후배들에게도 제 금융 경험과 은행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강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금융인으로서 금융 업종에 대한 위기감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강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시간을 아껴 쓰고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학년이나 4학년에 시작해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AI 시대엔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자격증만으론 부족합니다. 물론 금융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지만 금융권 입성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해 최선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경력을 설계해야 하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엔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기획력△데이터 분석 능력△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우리학교 선배님들이 금융권에서 활약하며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며 힘차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126년 역사의 군산항,
새만금항 신항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새만금항 신항

비안도

두리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